

다양한 축성방법 활용한 백제석축산성

오늘 정읍 고사부리성 발굴현장에서 현장 설명회 열려

백제 초축 이후 조선시대까지 대규모 개축과정·층위 확인

정읍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 사적 제 494호, 둘레 1.050m)은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성황산(해발 133m)에 위치한 성곽이다.

지난 6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지방통치의 핵심지소인 중방성(中方城)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관아가 성 바깥으로 이전한 영조 41년(1765)까지 중심적인 치소성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밝혀졌다.

시와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고사부리성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보존정비의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남문지와 연결되는 남동 성벽구간의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발굴조사 결과, 정읍 고사부리성이 삼국시대(백제) 초축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크게 3차례에 걸쳐 개축되었음이 밝혀졌고, 성벽 축조 및 개축 과정, 수구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삼국시대의 고사부리성은 협축식 석축 산성으로 조사구역 내 성벽 규모는 길이 45m, 잔존 높이 3.5m, 최대 폭 5.4m이다. 성벽은 기초가 바깥으로 밀리지 않도록 압반을 파내고, 그 안에 성벽 기반석을 끼우는 착암기초공법, 성돌을 쌓을 때 약 3~5cm 정도씩 들여서 쌓아 올리는 퇴물립 기법, 뿔자 형태의 바른층 쌓기, 맞물리는 성돌을 굴곡이 지게 다듬어 결합하는 그랭이 기법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이외에도 외성벽과 내성벽의 채움시설은 내부를 3~4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다듬은 돌을 채워 완성하였는데, 견고성과 안정성을 위해 공돌인 여러 가지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사부리성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개축되었는데, 삼국시대 석축축조 전통을 유지하면서 수구시설 7기가 이전 시기(백제) 석성의 협축 부 채움시설과 내성벽을 일부 굴착하고 설치되었다. 특히 성벽 외측의 보축시설과 비계시설 또는 목책열로 추정되는 4열의 주공열 등은 금

번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한편 고사부리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산행하는 성벽을 굴착하고 토성으로 새롭게 개축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고사부리성의 백제 성벽은 성돌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고, 견고성과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축성방법이 총동원되어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삼국시대(백제) 처음 축조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3차례에 걸쳐 개축되었고, 장기간 이용되었음이 명확해졌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성곽점유는 고사부리성이 백제 때 지방통치의 핵심적인 치소성으로 조성된 이래, 지리적·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말해준다.

한편, 고사부리성의 축성기법 가운데는 고구려의 축성기법과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삼죽토기, 항아리, 완, 병 등 다양한 백제토기와 기와, 고구려계 토기로 알려진 압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고사부리성의 복원·정비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성과는 오늘 오후 2시, 정읍 고사부리성 발굴현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800년 전 부안 고려청자 장인의 부단한 노력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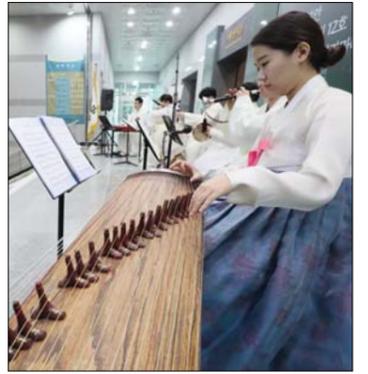
청자박물관, 기획전시 개막식 성료
10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서 진행

부안군은 최근 부안청자박물관에서 2019년 기획전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과 김춘진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 학계, 유물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권익현 부안군수의 환영사,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의 축사, 테이프커팅, 기획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부안 유천리 12호 고려청자가 마터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과 완형청자 등 약 200여점이 선보였으며, 용과 봉황무늬 청자와 선홍빛의 산화구리 안료로 그림을 그린 동화 청자 등 최고급의 고려청화용 도자기가 선보였다.

특히 상명대학교 김대환 교수가 기증한 '고려청자 양각 용무늬 버루'는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한 것으로 연적과 버루를 겸용한 희귀한 예로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편 발굴 유물 중에는 '지승이 통일초화산 회목본(紫松二桐一樹灰三灰木分)'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청자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파편 바깥 면에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 비율을 글자



로 적고, 내면에 배합비율에 따라 만든 유약을 발라 실험을 한 것으로 고려 청성기 비색 상감청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800년 전 부안 고려청자 장인의 부단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로 귀함을 뽐냈다. 이 외에도 벽을 장식하는 청자 타일, 청자 기와, 청자 피리·장고 등의 악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0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부안청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예약을 통해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부안=김석식 기자



전주시립예술단이 오는 5월 3일과 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창작음악극 '백범 김구' 공연을 선보인다.

예술 공연으로 만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삶

전주시립예술단, 내일 소리문화전당서 창작음악극 '백범 김구' 공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백범의 삶을 조명하는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립예술단(단장 김영원 부시장은) 오는 5월 3일과 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창작음악극 '백범 김구'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연은 3일 오후 7시 30분과 4일 오후 3시 2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단은 현재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등 4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각단의 전문 예술적 기량을 발판삼아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 아낌없이 준비한 전주시립예술단의 대표작이다. /송호철 기자

김철 전주시립합창단 지휘자는 "김구 선생은 일제와의 긴 싸움에서 겪었을 고독과 불안과 고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었던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으며 이것이 그가 혁명가의 길을 지속해서 걸을 수 있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며, "음악극 '백범 김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수많은 악기와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깊고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전주시립예술단의 대표 공연이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송호철 기자

고창의 봄 밤, 러시아 오페라와 판소리 협연 펼쳐져

문화의전당서 오늘 저녁 7시30분
글린카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따사로운 봄 밤, 동서양의 음악을 대표하는 고창 판소리와 러시아 오페라가 만나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오늘 오후 7시30분 러시아 글린카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의 글린카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클래식 선율과 국립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이리나 노비코바와 관악과장인 마르가리타 아문스(클라리넷), 야쿠티야 국립오페라극장 주역가수 예카테리나 코르야키나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여기에 고창 판소리를 대표하는 정회천 명고, 윤상호, 김태희 등 명창들과의 콜라보가 예정돼 동·서양의 소리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연은 제1부 러시아 글린카심포니오케스트라 세르게이 세발린의 지휘로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아리아 울게하소서' 등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연주한다.

제2부 '고창 판소리 심청가 아리아'는 지휘자 김민석 음악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윤상호, 김태희 명창이 판소리 심청가를 선사한다. 특히 러시아 국립 오페라 극장의 소프라노 이리



나 노비코바가 부르는 '아리아'와 메조소프라노 예카테리나 코르야키나가 부르는 판소리 추월만정(秋月滿庭) '얼굴'은 이번 공연에 가장 주목을 끌 전망이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회원 20% 할인)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